

- 국내 최초, 『구급대원 폭행예방』 시스템 제작 -

‘경고방송 및 비상벨’ 언론보도 결과보고

국내 최초 『구급대원 폭행예방 경고방송 및 비상벨』 관련한 언론보도 결과임

1 보도개요

- 보도일시: 2019. 3. 28. (목) 석간(오전 06:00부터 보도)
- 취재장소: 양천소방서 차고 및 후정
- 협조기관: 119광역수사대
- 취재언론: YTN, TBS, 연합뉴스TV 등 다수

2 취재과정

- 보도제목: 구급차內 폭행경고방송, 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에 나선다.
- 주요내용
 - 폭행피해 예방용 경고방송, 비상벨설비 2종류 구급차內 설치
 - 최근3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16년 46, '17년 38, '18년 65건 발생 지속증가
 - 주취자 폭행시 경고방송 및 비상벨로 운전대원에게 알린 후, 공동대응
 - 폭행예방용 장비로 구급대원 공동 대응하여 폭행피해 줄여 줄 것으로 기대



보도결과

□ 보도현황 : 총 56건

TV	지면신문	라디오	뉴미디어	인터넷신문	계
4	4	2	6	40	56
YTN, TBS 연합뉴스TV MBN	조선일보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아시아투데이	TBS BBS	곰TV, 유튜브	YTN, TBS MBC, SBS 중앙일보 등	

○ TV - 4건

1	“구급차 폭행 예방...경고 방송·비상벨 설치	YTN	3. 28 (목)
2	“구급대원 구해주는 비상벨...주취폭력 사라질까	연합뉴스TV	
3	서울시, 구급차에 경고방송·비상벨 설치	TBS	3. 29 (목)
4	서울 위협하면 곧바로 신고...경고방송 비상벨로 119 구급대원 보호한다.	MBN	

○ 지면신문 - 4건

1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 막는 비상벨	조선일보	3. 29 (금)
2	주취자 폭행 땀 비상벨 누르세요	서울신문	
3	서울시 구급차에 비상벨... 구급대원 폭행 막는다	헤럴드경제	
4	“구급대원 폭행은 범죄”	아시아투데이	

○ 라디오 - 2건

1	수도권 종합뉴스 14시	TBS	3. 28 (목)
2	119구급차 내 주취폭행, 경고방송 비상벨로 막는다.	BBS	

○ 뉴미디어 - 6건

1	구급대원을 구해주는 ‘비상벨’ 주취폭력 근절되나/	YTN	곰TV	3. 28 (목)
2	구급대원 구해주는 ‘비상벨’...주취폭력 근절되나 /	연합뉴스TV	YOUTUBE	
3	“구급대원 폭행은 범죄”...구급차에 경고방송·비상벨 설치 /	TBS	YOUTUBE	
4	[서울] 위협하면 곧바로 신고...경고방송 비상벨로 119 구급대원 보호한다 [굿모닝MBN]		YOUTUBE	
5	[자막뉴스] ‘구급차 폭행’ 막는다...경고 방송·비상벨 설치 /	YTN	YOUTUBE	
6	[자막뉴스] ‘구급차 폭행’ 막는다...경고 방송·비상벨 설치 /	YTN 자막뉴스	YOUTUBE	

○ 인터넷신문 - 40건

1	'구급차 폭행' 막는다 경고 방송·비상벨 설치	YTN	3. 28 (목)
2	수도권 종합뉴스	TBS	
3	'구급대원 폭행 피해 막는다' 119구급차에 '비상벨'	MBC	
4	폭행당하는 구급대원 없도록 119구급차에 '비상벨' 단다	SBS	
5	서울시, 폭행 당하는 구급대원 '비상벨'로 보호 나선다	중앙일보	
6	서울시, 폭행 경고방송·비상벨로 119 구급대원 보호	경향신문	
7	서울시 구급차에 비상벨 구급대원 폭행 막는다	헤럴드경제	
8	폭행당하는 구급대원 없도록 119구급차에 '비상벨' 단다	연합뉴스	
9	서울 구급차 폭행 경고방송·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	뉴스스	
10	서울시 119 구급차에 비상벨 구급대원 폭행 막는다	뉴스1	
11	서울시, 구급대원 폭행 막는다 구급차 내 '비상벨'	쿠키뉴스	
12	구급대원 폭행 막는다...119 구급차에 '비상벨'	OBS뉴스	
13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 구급대원 보호 나서	세이프투데이	
14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 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에 나선다	서울시티	
15	119 구급대원 주취폭행 피해 막는다...구급차에 경고방송 비상벨 운영	BBS	
16	서울시, 구급차내 폭행경고방송·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에 나선다	전국매일신문	
17	서울시, 119구급차에 비상벨 설치...구급대원 보호 나서	아시아타임즈	
18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 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에 나선다	아시아뉴스통신	
19	서울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장비 설치	동양뉴스통신	
20	서울시 119 구급차, 경고방송·비상벨로 대원 보호	아시아경제	
21	'구급대원 안전'... 폭행 예방 장비, 양천소방서 119구급대에 최초 운영	신아일보	
22	'폭행 무방비 노출' 119 구급대원 보호에 적극 나선다	세계로컬신문	
23	서울소방, 구급대원 안전 지킨다... 구급차에 비상벨 설치	소방방재신문	
24	서울시, 구급차 내 비상벨 등 설치구급대원 보호 강화	뉴스웍	
25	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 '비상벨' 설치로 대원 보호	동대문구민신문	
26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 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에 나선다	뉴스에이	
27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 나선다	머니투데이	
28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 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에 나선다	뉴스후	
29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 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에 나선다	툭뉴스	
30	119구급대원 폭행, 비상벨 경고방송으로 막는다	뉴스토마토	
31	서울시, 국내 최초 구급차 내 비상벨 설치 "구급대원 보호"	폴리뉴스	

32	구급차 내 주취자 등 폭행 무방비 노출 119구급대원 보호 나선다	아시아일보	
33	구급대원 폭행피해 최소화, 서울시가 나선다	환경일보	
34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 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에 나선다	내외통신	
35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 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에 나서	서울시정일보	
36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 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에 나선다	인트로뉴스	
37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 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에 나선다	중부뉴스통신	
38	구급대원 폭행 막는 119구급차 '비상벨' 설치	더나은미래	3. 29 (금)
39	"주취자 폭행 땀 비상벨 누르세요"	서울신문	
40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 경고방송·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에 나선다	보안뉴스	

○ TV - 4건



“구급차 폭행 예방”
YTN24 3. 28 (목)



“구급대원 구해주는 비상벨...”
연합뉴스TV 3. 28 (목)



“서울시, 구급차에 경고방송·비상벨 설치”
TBS 3. 28 (목)



“서울 위협하면 곧바로 신고...”
MBN 3. 29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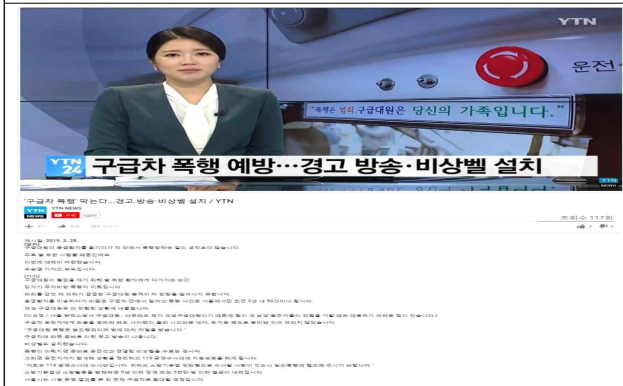
- 지면신문 - 4건(별도제출)
- 라디오 - 2건(별도제출)
- 뉴미디어 - 6건



“구급대원을 구해주는 ‘비상벨’
 곱TV 3. 28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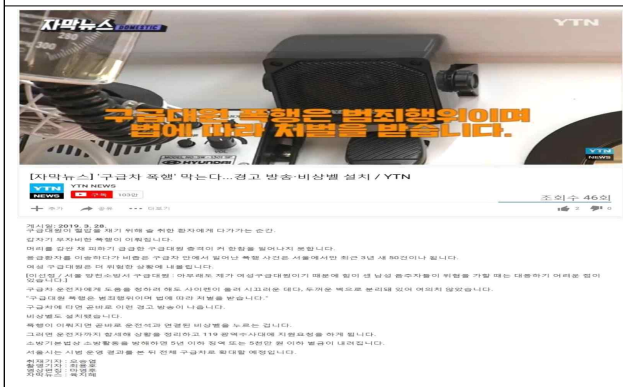
“구급대원 폭행은 범죄”
 유튜브 3. 28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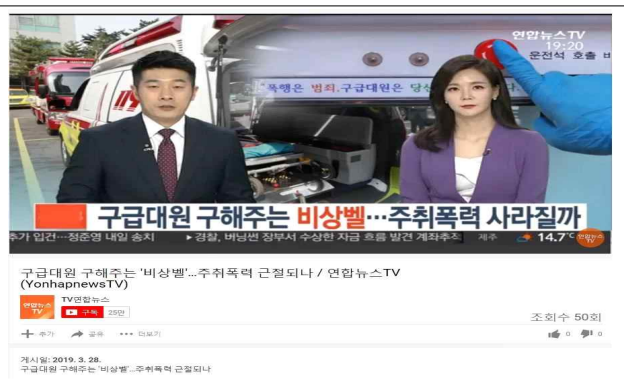
“구급차 폭행” 막는다
 유튜브 3. 28 (목)



“위협하면 곧바로 신고”
 유튜브 3. 28 (목)



“구급차 폭행‘ 막는다...’
 유튜브 3. 28 (목)



“구급대원 구해주는 ‘비상벨’
 유튜브 3. 28 (목)

○ 인터넷신문 - 40건

[자막뉴스] '구급차 폭행' 막는다...경고 방송·비상벨 설치

구급대원이 힐끗을 채기 위해 슬 쉼린 환자에게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부차비한 폭행이 이뤄집니다. 머리를 감싼 채 피하가 급급한 구급대원 충격이 커 한참을 잃어나지 못합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비좁은 구급차 안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은 서울에서만 최근 3년 새 50건이나 있습니다. 여성 구급대원은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됩니다. [이선정 / 서울 양천소방서 구급대원 : 아무래도 제가 여성 구급대원이기 때문에 일이 생 날성 음주자들이 위협을 가 할 때는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급차 운전자에게 도움을 청하러 해도 사이렌이 울러 시끄러운 데다, 두꺼운 벽으로 분리돼 있어 여의지 않았습니 다. "구급대원 폭행은 범죄행위이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구급차에 타면 곧바로 이런 경고 방송이 나옵니다. 비상벨도 설치했습니다. 폭행이 이뤄지면 곧바로 운전석과 연결된 비상벨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운전자까지 합세해 상황을 정리하고 119 광역수사대에 지원요청을 하게 됩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본 뒤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취객 등의 구급대원 폭행 막는다...경고방송·비상벨 설치

구급차가 난동을 부리자 구급대원이 운전자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벨을 누르고 있다. <사진=서울양천소방서>

[앵커멘트]
최근에 5월 3주호된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여성 구급대원이 사생활이 새어 있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폭행당한 사례가 좀지 않아, 서울시가 구급차 안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폭행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황실수살하며 승강기를 밟으면 취객이 구급대원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몇 차례나 머리를 맞은 구급대원은 끝내 뇌출혈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구급대원을 위협하는 폭행 사건은 지난 4년 간 서울에서만 15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의 90%가 취객이었는데, 처벌은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기자] [이성근 구급대원 / 서울시양천소방서 "구급대원이 대동하게 되면 양방 폭행 우려가 발생되죠. 현재 여성대원 증가 추세로 구급차 폭행 시 양방비로 노출돼 카구해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시는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구급차 내부에 경고방송 장치와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술에 취한 시민을 이송할 때 폭행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경고방송을 내보내고,

[SYN]
"구급대원 폭행은 범죄행위이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구급대원은 당신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런데도 난동이 벌어지면 비상벨을 눌러 운전자에게 상황을 알린 뒤 119광역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구급차는 환자까지 공간과 운전석이 벽으로 분리돼 그런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는데, 비상벨을 통해 공동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INT] [이성근 구급대원 / 서울시양천소방서 "여성 구급대원으로서 누가 죽이 도와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에 폭행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양천소방서에서 시범 운영한 뒤 시내 전 구급차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tbs뉴스 국유경입니다. ■

TBS

'구급대원 폭행 피해 막는다'...119구급차에 '비상벨' 단다

이재수 F | 기사입력 2019-03-28 11:54 | 최종수정 2019-03-28 13:52

운전석 호출 비상벨

119 구급대원이 취객 등으로부터 폭행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구급차 안에 경고방송 장치와 비상벨이 설치됩니다. 서울 양천소방서는 이 장비를 처음 도입하고, 일단 술에 취한 시민이 구급차에 탈 경우 "물리력을 행사하신 안 된다"는 경고방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고 후에도 폭행이 벌어지면 구급대원이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를 멈추고 119 광역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서울에서 119 구급대원이 폭행을 입은 사례는 149건으로 올해도 8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C

폭행당하는 구급대원 없도록...119구급차에 '비상벨' 단다

홍순준 기자 kshj@sbs.co.kr | 작성 2019.03.28 09:48 | 수정 2019.03.28 15:02 | 조회 86

운전석 호출 비상벨

서울시는 술 취한 시민 등으로부터 119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구급차에 경고방송 비상벨 설비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비가 처음 적용되는 곳은 양천소방서 119 구급대원입니다. 양천소방서는 구급차에 술에 취한 시민이 합세하면 우선 대동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경고방송을 들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구급대원이 위협을 받을 경우 비상벨을 눌러 운전자에게 알리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119 광역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2016년 48건, 2017년 38건, 2018년 65건에 발생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8건의 피해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대부분이 범종 집행유예를 받은 탓에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줄지 않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양천소방서의 운영 결과를 본 뒤 서울 전역 구급차에 경고방송·비상벨 설비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중앙일보 사회

서울시, 폭행 당하는 구급대원 '비상벨'로 보호 나선다

서울시가 주취자 폭행 등에 유방비로 노출된 119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구급차에 경고방송 비상벨 설비를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1차 경고에도 위협하면 비상벨로 지원 요청
양천소방서 시범 운영 뒤 서울 전역 확대

양천소방서는 구급차에 술에 취한 시민이 탑승할 시 우선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원에게 클리닉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경고 방송을 한다.

그런데도 구급대원이 위협을 받을 경우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 운전자에게 알리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119 광역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에서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는 2016년 46건, 2017년 38건, 2018년 65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8월까지 8건의 피해 사례가 파악됐다.

그러나 가해자 대부분이 벌금 집행유예를 받는 탓에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양천소방서의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서울 전역 구급차에 경고방송 비상벨 설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김윤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중앙일보

경향신문

서울시, 폭행 경고방송-비상벨로 119 구급대원 보호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우현)는 처음으로 취객 등으로부터 119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구급차에 경고방송-비상벨 설비를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질병이 처음 직면하는 곳은 양천소방서 119 구급차다. 특별 예방 장비는 경고방송과 비상벨 장비 2종류다. 술에 취한 시민이 탑승하면 구급대원이 버튼을 눌러 "대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경고방송을 하게 된다. 구급대원이 위협을 받을 경우 비상벨을 눌러 운전자에게 알리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119 광역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한다.

그동안 많은 구급차 안에서 주취자 등의 폭행에 유방비로 노출된 119 구급대원에 폭행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골계점으로 지적돼왔다. 특히 119 구급차는 운전자와 환자 처치 공간이 각적으로 분리돼 있고, 이들 중에는 사이렌 소리로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쉽게 알 수 없다.

서울에서는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2016년 46건, 2017년 38건, 지난해 65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8건의 폭행 피해가 있었다. 폭행이 발생한 장소는 현행이 93건(9.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급차 내부가 50건(3.2%)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으로 일할 일 없고 퇴근 경우는 3%(4건)에 그린다.

서울시는 양천소방서의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특별 예방 장비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뉴스 오피니언 재테크 부동산 라이프 연예 문화 스포츠 지역뉴스

최신기사

서울시 구급차에 비상벨...구급대원 폭행 막는다

기사입력 2019-03-28 11:28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 처음으로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인 경고방송과 비상벨 설비를 양천소방서 119구급대에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 2종류다. 음급이송 중 주취자가 탑승하면 먼저 구급대원이 버튼을 눌러 경고방송을 해 주취자에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폭행의 위협에 처하면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린다. 운전자는 즉시정차해 구급대원을 돕고 119광역수사대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 운영 결과 효과를 토대로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진용 기자 jyc@cafe@

헤럴드경제

연합뉴스TV

구급대원 구해주는 '비상벨'...주취폭력 근절되나

구급대원 구해주는 '비상벨'...주취폭력 근절되나

위험에 빠진 시민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은 오히려 위협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시민, 주취자가 호수 중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은데도, 구급대원을 위한 안전 장치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백광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폭행 위험'인 낯선 곳 구급대원이 무척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구급차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고 방송이 울려 퍼지고, 밤에 따라 제복을 받습니다. <연속음> '구급차의 위험이 가해자 대상 구급대원 비상벨을 눌러 차를 운전하는 구급대원에 비방상황을 알립니다. 운전자는 즉시 차를 정차해 제압을 돕고 119 광역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시민에 따라 주취자는 인근 지구대로 즉각 인계됩니다. 안전에서 저음으로 서울 양천소방서에 구급대원 안전을 위한 경고방송과 비상벨이 설치 운영됩니다. 한행방송 초상장비를 지원 수 있는 구급대원들은 응급구조사 미용 중 주취자 등의 폭행에 유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구급대원 안전을 위해, 주취자를 도우려다 폭행을 당해 결국 뇌출혈로 인 향환에 순직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울 구급대원 전체 13.7%에 달하는 여성 구급대원은 남성 주취자의 인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소영 / 서울 양천소방서 소방장> "계엄을 해 바로 주먹을 휘두르셔서 영웅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단행히 그때 상황은 피한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러면 상황이 있습니다." 비상벨 설치와 함께 다른 구급대원 폭행피해 구호를 위한 장비는 노숙한 구급대원의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편집국입니다. white@ymn.co.kr 연합뉴스TV기사의료의 및 재배포 - 리트/리인 jebo23 <합>

연합뉴스

2019-03-28 (목) MBS | 코리아뉴스 | 연합뉴스 | 모바일

HYUNDAI MOBIS 다 나은 삶을 위한 혁신

서울시 119 구급차에 폭행 경고방송...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

등록 2019-03-28 08:00:00

1 | 서울시, 비상벨설비 2종류 구급차에 설치 운영



【서울=뉴스1】배민족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를 앞선 소방서 119구급차에 설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동도중에 같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위자 등의 폭행에 위협받은 노년층 119구급대원에게 있어 폭행에 대응할 대안 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구급대원 1350명 중 여성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185명)였다.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주위자 폭행피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폭행피해 예방을 장치는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 2종류다. 응급이송 중 주위자가 합송하면 먼저 구급대원이 비문을 눌러 경고방송을 켜 주위자에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폭행의 위험에 처하면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린다. 운전자는 즉시정차해 구급대원을 돕고 119광역수사대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된다.

119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처치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돼 있다. 이송 중에는 싸이렌 휘발음으로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알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중에도 구급차 운전석과 환자처치 공간 상로 간에 소통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는 2016년 46건, 2017년 38건, 지난해 65건이 발생했다. 올해 3월 현재까지 8건의 폭행피해가 나타났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처벌방과는 실적신고가 3%(4건)에 그쳤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앞선 소방서 119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을 장비 운영결과와 성과를 토대로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mikbae@news1.com

뉴스1

news1 뉴스 포토 | 이슈 | 키워드뉴스

정치 | 사회 | 경제 | 산업 | 연극 | 월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여행 | TV


연말 · 연말 · 시간 · 사고 · 교육 · 복지 · 의료 · 생활민생 · 벨스게터 · 계약 · 노동 · 환경 · 기상 · 재해 · 일반 · 기타

홈 > 사회 > 일반

서울시 119 구급차에 비상벨...구급대원 폭행 막는다

앞선 소방서 구급차, 경고방송·비상벨 운영
(서울=뉴스1) 배민족 기자 | 2019-03-28 08:00:00

기사보러 | 제1면보기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서울시가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 구급차에 비상벨을 단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앞선 소방서 119구급차에서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을 위해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 이송 도중 같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위자 등의 폭행에 위협받은 노년층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폭행이 발생해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119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처치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돼 있고, 이송 중에는 싸이렌 소리 때문에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해도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없다.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중에도 운전석과 구급대원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앞선 소방서에서는 응급이송 중 주위자가 합송하면 구급대원이 비문을 눌러 경고방송을 통해 주위자에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 만약 구급대원이 폭행의 위험에 처하면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고, 운전자는 즉시정차해 구급대원을 돕는 한편 119광역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한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119구급대원 폭행은 2016년 46건, 2017년 38건, 2018년 65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적신고가 4건(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며 "수준 높은 전문 응급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119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honey@news1.kr

뉴스1

쿠키뉴스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국제 | 연예 | 스포츠 | 생활문화 | 진국 | 모든 별상 | 주간전경TV

Home > 기사내용

서울시, 구급대원 폭행 막는다...구급차내 '비상벨'

배민족 기자 | 2019-03-28 08:00:00



서울시 119구급차에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한 비상벨이 설치되고 경고방송이 실시된다고 28일 밝혔다.

돌리가 가질 면과 흔들리는 것은 안전사고이다. 안전소방서 소속 구급차에서 술에 취한 시민이 환송하면 '대형차와 운전석은 유사하여 안 된다'는 경고방송을 할 계획이다. 또 구급대원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 운전자에게 알리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119 광역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2016년 46건, 2017년 38건, 2018년 65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3월 8건의 폭행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안전소방서의 안전 대책을 분석한 뒤 서울 전역 구급차에 이 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뉴스1 기자 newsreal@kukinews.com

쿠키뉴스

OBS NEWS

뉴스M | 뉴스오늘 | 경기인뉴스 | 월드뉴스 | 연예뉴스 | 분야별 | 다시보기

HOME > 사회 > 사회일반

구급대원 폭행 막는다...119구급차에 '비상벨'

정진오 기자 | 2019.03.28 10:08

서울시는 술에 취한 시민 등으로부터 119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구급차에 경고방송·비상벨 설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구급차에 술에 취한 시민이 탑승하면 우선 폭행을 방지하는 경고방송을 한 뒤 구급대원이 위협을 받을 경우 비상벨을 눌러 운전자에게 알리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119 광역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9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65건이나 발생했으며, 가해자 대부분이 벌금 집행유예를 받는 탓에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오 기자
Copyright © OBS 뉴스

OBS 뉴스

safe today

안전이 오늘 더 이상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 구급대원 보호 나선'

안전이 오늘 더 이상

안전이 오늘 더 이상

Seoul City

글로벌뉴스 Global News 지역뉴스 경제사회 인사이슈 시민불만제로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 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에 나선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차내 폭행피해 예방 등 장비는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를 확충해서 119구급대에 설치 운영한다고 28일(화) 밝혔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도중에 좁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위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게 있어 폭력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구급대원 1,350명 중 여성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185명)로,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주위자 폭행방어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전에 설치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①경고방송과 ②비상벨설비 2종류로 응급이송 중 주위자가 탑승하면 먼저 구급대원이 배를 눌러 경고방송을 하여 주위자에게 구급차내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폭행의 위험에 처하면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고, 운전자는 즉시정차 하여 구급대원을 돕고, 119광역수사대에 지원 요청하게 된다.

119구급차는 운전실과 환자차지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송 중에는 사이렌 쉼으로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쉽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중에도 구급차 운전실과 환자차지 공간 상호 간에 소통방향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3년 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는 '16년 46건, '17년 38건, '18년 65건이 발생했고, '19년 3월 현재까지 8건의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구급차내 폭행 피해자 처벌결과는 실형선고자 3%(42명)에 그치고 있으며, 포형미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주위를 아우르며 폭행행위 감시 처벌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더 나은 통행의 일환으로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119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출몰할 수 있어야한다"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홍미선 기자 seoulcity07@naver.com

세이프투데이

서울시

BBS NEWS

전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불교 국제 전국 BBS PLAZA | BBS 인터넷 | BBS

119 구급대원 주위폭행 피해 막는다...구급차에 경고방송 비상벨 운영

서울시가 주위폭행 등으로부터 119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구급차에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설치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양천소방서 119구급대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차내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인 경고방송과 비상벨 설비를 확충해서 119구급대에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급차내 폭행 예방장비는 구급차에 주위자가 탑승하면 먼저 경고방송을 하고, 그래도 구급대원에게 위협이 가해지면 비상벨을 눌러, 운전자는 즉시정차 하여 119광역수사대에 지원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에서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는 탓에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배재수 기자 donjin21@bbsi.co.kr

<저작권자 © BBS 경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매일신문

www.jonmaeil.com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에 나선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차내 폭행피해 예방 등 장비인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를 확충해서 119구급대에 설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도중에 좁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위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게 있어 폭력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구급대원 1,350명 중 여성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185명)로,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주위자 폭행방어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전에 설치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①경고방송과 ②비상벨설비 2종류로 응급이송 중 주위자가 탑승하면 먼저 구급대원이 배를 눌러 경고방송을 하여 주위자에게 구급차내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119구급차는 운전실과 환자차지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송 중에는 사이렌 쉼으로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쉽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중에도 구급차 운전실과 환자차지 공간 상호 간에 소통방향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3년 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는 '16년 46건, '17년 38건, '18년 65건이 발생했고, '19년 3월 현재까지 8건의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BBS

전국매일신문

HOME > 뉴스 > 정치사회

서울시, 119구급차에 비상벨 설치...구급대원 보호 나서

최상봉 기자 | 승인 2018.03.28 09:41 | 글 13면 | 5 댓글

▶ **폭행피해 예방을 경고방송, 비상벨설비 2종류 구급차 내 설치**



(사진=서울시)

【아시아타임즈=최상봉 기자】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을 장비인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를 양친소방서 119구급대에 설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도중에 좁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위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게 있어 폭력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구급대원 1350명 가운데 여성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로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주위자 폭행방어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설치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 2종류로 응급이송 중 주위자가 합송하면 우선 구급대원이 버튼을 눌러 경고방송을 해 주위자에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폭행의 위험에 처하면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고, 운전자는 즉시정차해 구급대원을 돕고 119응급수사대에 지원 요청 하게 된다.

119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차지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송 중에는 싸이렌 쉼터로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쉽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중에도 구급차 운전석과 환자차지 공간 상호 간에 소통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처벌결과와 실태선고가 3%4건에 그치고 있으며, 폭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주위를 이유로 폭행행위 감경 처벌도 한 통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더 나은 품질의 현장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19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jam7804@asiatime.co.kr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 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에 나선다

최고3년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건수 '16년 46, '17년 38, '18년 65건 발생 (아시아뉴스통신=최상봉 기자)



비상벨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을 장비인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를 양친소방서 119구급대에 설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도중에 좁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위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게 있어 폭력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구급대원

1,350명 중 여성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185명)로,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주위자 폭행방어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설치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①경고방송과 ②비상벨설비 2종류로 응급이송 중 주위자가 합송하면 먼저 구급대원이 버튼을 눌러 경고방송을 하여 주위자에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119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차지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송 중에는 사이렌 쉼터로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쉽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중에도 구급차 운전석과 환자차지 공간 상호 간에 소통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3년 간 119구급대에 대한 폭행피해는 '16년 46건, '17년 38건, '18년 65건이 발생했고, '19년 3월 현재까지 8건의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처벌결과는 실태선고 3%(4건)에 그치고 있으며, 폭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주위를 이유로 폭행행위 감경 처벌도 한 통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장비 설치

최상봉 기자 | 승인 2019.03.28 09:42

▶ **구급차 내 경고방송, 비상벨 등**



(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소방재난본부는 28일 양친소방서 119구급대에 국내 처음으로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인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설치 운영한다.

본부에 따르면,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응급이송 중 주위자가 합송하면 구급대원이 버튼을 눌러 경고방송을 하고, 구급대원이 폭행의 위험에 처하면 비상벨을 눌러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려 즉시 정차해 구급대원을 도우며, 119응급수사대에 지원 요청한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도중 구급차 내부에서 주위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이 폭력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전체 구급대원 1350명 중 여성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185명)로,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주위자 폭행방어에 어려움이 있으며, 119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차지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돼 운전자는 폭행 발생에 대해 쉽게 알 수가 없다.

한편, 최근 3년 간 2016년 46건, 2017년 38건, 전년 65건, 올해 8건의 폭행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실태선고는 3%(4건)에 그치고 있다.

총 157건의 폭행이 일어난 장소는 현양이 93건(59.2%)으로 가장 많았고, 구급차 내부가 50건(32%)을 차지했다.

양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에 구급차에 설치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를 활용, 신속한 공동대처로 폭행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혁원 dynews1@naver.com

사회 사안사고 교육 인물 지역 일반 경제

서울시 119 구급차, 경고방송비상벨로 대원 보호...양친구에서 첫 시행

최상봉 기자 | 승인 2019.03.28 09:42 | 댓글 5개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서울시 119구급차에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비상벨이 설치되고 경고방송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이달이 119구급차에 경고방송비상벨 설비를 마련하고 양친소방서에서 처음으로 장비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친소방서 소속 구급차에 출근 시민이 합송하면 다함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인 있다는 경고방송이 나온다. 또 구급대원이 위험을 받을 경우 비상벨을 눌러 운전자에게 알리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119 응급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서울에서 119 구급대에 대한 폭행은 2016년 46건, 2017년 38건, 2018년 65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구급대원 1350명 중 185명(13.7%)이 여성으로 구급차 내 폭력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 막는다”...서울 119구급차에 ‘비상벨’ 설치

최복은 기자 | 승인 2019.03.28 10:19 | 5면 2호

구급대원 폭행 ‘무방비 노출’...경고방송 후 비상벨
양천소방서 첫장비 운용...향후 전체 구급차로 확대



119 구급차 (서울=연합뉴스)

서울시 119 구급차에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한 ‘비상벨’이 설치되고 ‘경고방송’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119 구급차에 비상벨 경고방송 설치를 마친다고, 양천소방서에서 처음으로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런 구급대원이 응급환자 이송 도중 중증 구급차 내부에서 주위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폭행이 발생해도 운전자가 할 수 없다.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중에도 운전석과 구급대원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또 119 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처치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돼 있고, 이송 중에는 사이렌 소리 때문에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해도 운전자가 알 수 없다.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중에도 운전석과 구급대원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양천소방서는 응급이송 중 주위자가 담요를 대어 어깨를 눌러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비상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비상벨을 누르면 구급대원에게 경고방송을 해 주위자에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 준다.

그런데도 구급대원이 폭행의 위험에 처하면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 운전자에게 알리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119구급차내에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최근 3년간 119구급차에 대한 폭행피해는 2016년 46건, 2017년 38건, 2018년 65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3월까지 8건의 피해 사례가 파악됐다.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처벌결과에 실행선고거 3%(4건)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며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 운용결과 효과적임을 전제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복은 기자
goeun_p@shinailbo.co.kr

서울 “폭행 무방비 노출” 119 구급대원 보호에 적극 나선다

최복은 기자 | 승인 2019.03.28 10:19 | 5면 2호

구급대원 폭행 ‘무방비 노출’...경고방송 후 비상벨
양천소방서 첫장비 운용...향후 전체 구급차로 확대



119구급차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경고방송을 송출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복은)는 서울 119구급차에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용 비상벨을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처음으로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전에 설치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2종류로 운용했다. 응급이송 중 주위자가 합송하면 먼저 구급대원이 비호를 불러 경고방송을 해 주위자에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또 119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처치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돼 있고, 이송 중에는 사이렌 소리 때문에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가 알 수 없다.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중에도 구급차 운전석과 환자처치 공간 간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이전에 설치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급차 폭행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차구체로 개발했다”며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 운용, 신속한 응급대처로 폭행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총 157건의 중증자 폭행이 일어난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구급대원 폭행 예방용 장비 운용결과 효과적임을 전제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며 “다음 통일의 현장 중립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19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복은 기자
goeun_p@shinailbo.co.kr

서울소방, 구급대원 안전 지킨다... 구급차에 비상벨 설치

최복은 기자 | 승인 2019.03.28 10:19 | 5면 2호



119구급차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경고방송을 송출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복은)는 서울 119구급차에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용 비상벨을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처음으로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전에 설치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2종류로 운용했다. 응급이송 중 주위자가 합송하면 먼저 구급대원이 비호를 불러 경고방송을 해 주위자에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또 119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처치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돼 있고, 이송 중에는 사이렌 소리 때문에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가 알 수 없다.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중에도 구급차 운전석과 환자처치 공간 간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이전에 설치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급차 폭행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차구체로 개발했다”며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 운용, 신속한 응급대처로 폭행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총 157건의 중증자 폭행이 일어난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구급대원 폭행 예방용 장비 운용결과 효과적임을 전제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며 “다음 통일의 현장 중립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19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복은 기자
goeun_p@shinailbo.co.kr

서울시, 구급차 내 비상벨 등 설치...구급대원 보호 강화

최복은 기자 | 승인 2019.03.28 10:19 | 5면 2호



119구급차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경고방송을 송출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복은)는 서울 119구급차에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용 비상벨을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처음으로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전에 설치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2종류로 운용했다. 응급이송 중 주위자가 합송하면 먼저 구급대원이 비호를 불러 경고방송을 해 주위자에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또 119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처치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돼 있고, 이송 중에는 사이렌 소리 때문에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가 알 수 없다.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중에도 구급차 운전석과 환자처치 공간 간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이전에 설치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급차 폭행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차구체로 개발했다”며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 운용, 신속한 응급대처로 폭행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총 157건의 중증자 폭행이 일어난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구급대원 폭행 예방용 장비 운용결과 효과적임을 전제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며 “다음 통일의 현장 중립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19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복은 기자
goeun_p@shinailbo.co.kr

자치행정신문

2019.03.28 목요일

뉴스 | 이슈 | 온라인 | 상담

소방서

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 나선다

구급차 내 폭행 경고를 예방하고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도입한다. 119구급대에 설치된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도입한다. 119구급대에 설치된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도입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도입한다. 119구급대에 설치된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도입한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도중에 좁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위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게 있어 폭행에 대응할 다양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앞서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를 119구급차에 설치하고,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도입한다. 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를 도입한다. 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를 도입한다.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폭행에 휘둘러 치러진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고, 운전자는 즉시 장차 구급대원을 돕고 119응급구조대에 지원 요청 하게 된다.

119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차지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 둘에는 차이된 취향으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쉽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도중에 구급차 운전원과 환자차지 공간 상호 간에 소통방법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3년 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는 '16년 46건, '17년 38건, '18년 65건이 발생했고, '19년 3월 현재까지 8건의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처벌결과를 살펴보면 3%(4건)에 그치고 있으며, 폭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주위를 이유로 폭행행위 감정 처벌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에 구급차에 설치한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차구체로 개발된다"며,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 활용, 신속한 공동대처로 폭행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 도입결과와 효과를 토대로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더 나은 품질의 현장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19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어야한다"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에이 어솔선 mb@newsae.co.kr

동대문구민신문

머니투데이

뉴스 | 증권 | 정치 | 법률 | TOM | 실업 | 자동차 | 연예 | 이슈 | MTR포트 | VIP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 나선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도입한다. 119구급대에 설치된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도입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도입한다. 119구급대에 설치된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도입한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도중에 좁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위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게 있어 폭행에 대응할 다양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앞서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를 119구급차에 설치하고,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도입한다. 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를 도입한다. 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를 도입한다.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폭행에 휘둘러 치러진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고, 운전자는 즉시 장차 구급대원을 돕고 119응급구조대에 지원 요청 하게 된다.

119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차지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 둘에는 차이된 취향으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쉽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도중에 구급차 운전원과 환자차지 공간 상호 간에 소통방법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3년 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는 2016년 46건, 2017년 38건, 2018년 65건이 발생했고, 올해 3월 현재까지 8건의 폭행피해가 있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처벌결과를 살펴보면 3%(4건)에 그치고 있으며, 폭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주위를 이유로 폭행행위 감정 처벌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에 구급차에 설치한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차구체로 개발된다"며,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 활용, 신속한 공동대처로 폭행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 도입결과와 효과를 토대로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더 나은 품질의 현장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19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뉴스에이 어솔선 mb@newsae.co.kr

머니투데이

뉴스에이

뉴스종합 | 한국뉴스 | 연예소보스 | 온라인 | 생활건강 | 부동산 | 어솔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 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에 나선다

구급차 내 폭행 경고를 예방하고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도입한다. 119구급대에 설치된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도입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도입한다. 119구급대에 설치된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도입한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도중에 좁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위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게 있어 폭행에 대응할 다양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앞서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를 119구급차에 설치하고,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도입한다. 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를 도입한다. 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를 도입한다.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폭행에 휘둘러 치러진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고, 운전자는 즉시 장차 구급대원을 돕고 119응급구조대에 지원 요청 하게 된다.

119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차지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 둘에는 차이된 취향으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쉽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도중에 구급차 운전원과 환자차지 공간 상호 간에 소통방법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3년 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는 '16년 46건, '17년 38건, '18년 65건이 발생했고, '19년 3월 현재까지 8건의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처벌결과를 살펴보면 3%(4건)에 그치고 있으며, 폭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주위를 이유로 폭행행위 감정 처벌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에 구급차에 설치한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차구체로 개발된다"며,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 활용, 신속한 공동대처로 폭행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 도입결과와 효과를 토대로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더 나은 품질의 현장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19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어야한다"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에이 어솔선 mb@newsae.co.kr

뉴스에이

NEWSWHO

당신의 정수기물은 아직도 산성수입니까? 물을 바꾸라! 산성수정수기

정치 | 경제 | 사회/교육 | 영감 | 법안 | 문화/경향 | 인터넷 | WK | 연예소보스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 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에 나선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도입한다. 119구급대에 설치된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도입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도입한다. 119구급대에 설치된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도입한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도중에 좁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위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게 있어 폭행에 대응할 다양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앞서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를 119구급차에 설치하고, 경고방송과 비상벨을 도입한다. 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를 도입한다. 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를 도입한다.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폭행에 휘둘러 치러진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고, 운전자는 즉시 장차 구급대원을 돕고 119응급구조대에 지원 요청 하게 된다.

119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차지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 둘에는 차이된 취향으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쉽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도중에 구급차 운전원과 환자차지 공간 상호 간에 소통방법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3년 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는 2016년 46건, 2017년 38건, 2018년 65건이 발생했고, 2019년 3월 현재까지 8건의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처벌결과를 살펴보면 3%(4건)에 그치고 있으며, 폭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주위를 이유로 폭행행위 감정 처벌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에 구급차에 설치한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차구체로 개발된다"며,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 활용, 신속한 공동대처로 폭행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소통장비 도입결과와 효과를 토대로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더 나은 품질의 현장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19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뉴스에이 어솔선 mb@newsae.co.kr

뉴스후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 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에 나선다.

입력: 2019.03.28 16:50 | 댓글: 5개



윤전차 폭행피해장황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이하 소방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차내 폭행피해 예방 중 장비인 경고방송과 비상벨설치를 양천소방서 119구급대에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도중이 많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위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게 있어 폭력에 대응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구급대원 1,350명 중 여성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주위자 폭행방어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밖에 설치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 2종류로 응급이송 중 주위자가 합승하면 먼저 구급대원이 버튼을 눌러 경고방송을 해 주위자에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119구급차는 운전실과 환자차지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송 중에는 사이렌 소리로 인해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쉽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중에도 구급차 운전실과 환자차지 공간 상호 간에 소통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3년 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는 2016년 46건, 2017년 38건, 2018년 65건이 발생했고, 2019년 3월 현재까지 8건의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처벌결과를 살펴보면 3%에 그치고 있으며, 폭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주위를 이유로 폭행행위 징검다리 한 원인이란 것으로 보인다.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런데 구급차에 설치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개발했다"며,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를 활용, 신속한 공동대처로 폭행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 운영결과 효과성을 토대로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철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더 나은 품질의 현장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19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 폭행, 비상벨·경고방송으로 막는다

지난해 65건 발생, 운전대원 공동대응으로 폭행 예방

[뉴스토마토 박준원 기자] 매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가 줄어들어 따라 서울시가 폭행 예방용 장비를 설치해 구급대원을 보호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차내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인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를 양천소방서 119구급대에 28일 설치했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도중이 많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위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게 대응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체 구급대원 1,350명 중 여성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185명)로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주위자 폭행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경고방송과 비상벨 2종류로 응급이송 중 주위자가 합승하면 먼저 경고방송을 해 주위자에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 경고방송에도 구급대원이 폭행의 위험에 처하면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고, 운전자는 즉시 장차의 구급대원을 돕고 119명목수사에 지원 요청한다.

119구급차는 운전실과 환자차지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송 중에는 사이렌 소리로 인해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쉽게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중에도 구급차 운전실과 환자차지 공간 상호 간에 소통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는 2016년 46건, 2017년 38건, 2018년 65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건의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폭행 가해자 처벌결과를 살펴보면 3%(4건)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 주위를 이유로 폭행행위 징검다리가 되고 있다. 처벌결과 비율이 49건, 집행유예가 20건, 기소유예 7건, 기타 6건, 현재 진행 중 7건이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중 157건 중에서 폭행이 일어난 장소별로는 환승이 93건(59.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급차 내부가 50건(32%)을 차지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 운영결과 효과를 바탕으로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런데 구급차에 설치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개발했다"며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를 통해 신속한 공동대처로 폭행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천소방서 구급차에 폭행 예방 장비인 비상벨과 경고방송 장비를 설치하는 모습이다. (YTN)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박준원 기자 yjunsay@tomato.com

톱뉴스

뉴스토마토

사회

서울시, 국내 최초 구급차 내 비상벨 설치 "구급대원 보호"

119구급차 경고방송 및 비상벨로 운전대원에 대한 폭행 예방



[폴리뉴스 이재현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8일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구급차내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인 경고방송 및 비상벨설비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119구급대원은 응급환자 이송도중 많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위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밖에 설치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경고방송과 비상벨 2종류로 응급이송 중 주위자가 합승하면 먼저 구급대원이 버튼을 눌러 경고방송을 해 주위자에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방송 이후에는 구급대원이 폭행의 위험에 처하면 비상벨을 눌러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린다. 비상벨이 울리면 운전자는 즉시 장차의 구급대원을 돕고 119명목수사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된다.

119구급차는 운전실과 환자차지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송 중에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쉽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란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는 2016년 46건, 2017년 38건, 2018년 65건이 발생했다. 또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 중 157건에서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일어난 것은 50건으로, 32%를 차지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 운영결과 효과성을 토대로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철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며 "더 나은 품질의 현장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19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이재현@polynews.com

사회

구급차 내 주위자 등 폭행 무방비 노출 119구급대원 보호 나선다

서울시, 2016년 46건·2017년 38건·2018년 65건 발생 가해자 처벌신고 단 4건... 경고방송 및 비상벨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예방

[아시아일보/박준원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차내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인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를 양천소방서 119구급대에 설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도중이 많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위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게 있어 폭력에 대응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구급대원 1,350명 중 여성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185명)로,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주위자 폭행방어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밖에 설치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경고방송과 비상벨 2종류로 응급이송 중 주위자가 합승하면 먼저 구급대원이 버튼을 눌러 경고방송을 해 주위자에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폭행의 위험에 처하면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고, 운전자는 즉시 장차의 구급대원을 돕고 119명목수사에 지원 요청 하게 된다.

119구급차는 운전실과 환자차지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송 중에는 사이렌 소리로 인해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쉽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중에도 구급차 운전실과 환자차지 공간 상호 간에 소통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3년 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는 2016년 46건, 2017년 38건, 2018년 65건이 발생했고, 19년 3월 현재까지 8건의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처벌결과를 살펴보면 3%(4건)에 그치고 있으며, 폭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주위를 이유로 폭행행위 징검다리 한 원인이란 것으로 보인다.

처벌결과 비율이 49건, 집행유예가 20건, 기소유예 7건, 기타 6건, 현재 진행 중이 7건이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중 157건의 중에서 폭행이 일어난 장소별로는 환승이 93건(59.2%)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급차 내부가 50건(32%)을 차지했다.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런데 구급차에 설치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개발했다"며,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로 활용, 신속한 공동대처로 폭행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아시아일보

중부뉴스통신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경고방송, 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에 나선다.

▲ 구급차 폭행피해

[중부뉴스통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차 운행시 대원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한 경고방송과 비상벨설치를 통한 구급차에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동도중에 좁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취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 개 있어 폭행에 대응할 여한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동도중에 좁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취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 개 있어 폭행에 대응할 여한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구급대원 1,350명 중 여성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로,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주취자 폭행피해를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설치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 2종류로 응급이송 중 주취자가 탑승하면 먼저 구급대원이 버튼을 눌러 경고방송을 해 주취자에게 구급차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119구급차는 운전실과 환자차지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송 중에는 시야만 확보되고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실은 쉽게 알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중에도 구급차 운전실과 환자차지 공간 상호 간에 소통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는 2016년 46건, 2017년 39건, 2018년 65건이 발생했고, 2019년 3월 현재까지 6건의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처벌결과를 살펴보면 39%에 그치고 있으며, 폭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주취를 이유로 폭행행위 감경 처벌도 한 원인으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에 구급차에 설치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급차 내부 폭행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차구체으로 개발했다"며,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물론, 신속한 응급처치로 폭행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 운영결과 효과를 토대로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제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고 믿고, 더 나은 품질의 원정 응급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19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어야한다"며, "시민과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더나은미래 | 박재호 기자 | 기획/특집 | 권혁준 논설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 막는 119구급차 '비상벨' 설치

▲ 구급차 폭행피해

[보안뉴스 박재호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차 운행시 대원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한 경고방송과 비상벨설치를 통한 구급차에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동도중에 좁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취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 개 있어 폭행에 대응할 여한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동도중에 좁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취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 개 있어 폭행에 대응할 여한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구급대원 1,350명 중 여성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로,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주취자 폭행피해를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설치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 2종류로 응급이송 중 주취자가 탑승하면 먼저 구급대원이 버튼을 눌러 경고방송을 해 주취자에게 구급차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119구급차는 운전실과 환자차지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송 중에는 시야만 확보되고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실은 쉽게 알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중에도 구급차 운전실과 환자차지 공간 상호 간에 소통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는 2016년 46건, 2017년 39건, 2018년 65건이 발생했고, 2019년 3월 현재까지 6건의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처벌결과를 살펴보면 39%에 그치고 있으며, 폭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주취를 이유로 폭행행위 감경 처벌도 한 원인으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에 구급차에 설치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급차 내부 폭행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차구체으로 개발했다"며,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물론, 신속한 응급처치로 폭행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 운영결과 효과를 토대로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제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고 믿고, 더 나은 품질의 원정 응급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19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어야한다"며, "시민과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중부뉴스통신

서울 Pn PUBLIC NEWS

정책·행정 | 지방자치 | 서울區政 | 고시·채용 | 퍼블릭

가정안 Today | 정책뉴스 | 부채환 소식 | 공직기반

판박한 폐기물에 제주순 있다?
경기·제주, 필리핀서 반출용 쓰레기 운송

진 15세 고학 28억... 21억 값 은 의원님
경기·제주, 필리핀서 반출용 쓰레기 운송

“주취자 폭행 땐 비상벨 누르세요”

입력 : 2019-08-28 17:54 | 수정 : 2019-08-29 02:58

“주취자 폭행 땐 비상벨 누르세요”

28일 서울 양천소방서에서 119구급대원이 주취자 이송 중 폭행 상황을 가청해 구급차 내부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고 있다. 서울시는 양천소방서 구급차 7대에 전국 최초로 비상벨을 설치해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모든 구급차에 경고 방송 안내와 비상벨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울신문

보안뉴스

Home > 기획기사

서울시, 구급차 내 폭행 경고방송·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에 나선다

2019-08-29 08:26

▲ 구급차 폭행피해

[보안뉴스 박재호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급차 운행시 대원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한 경고방송과 비상벨설치를 통한 구급차에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동 도중에 좁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취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 개 있어 폭행에 대응할 여한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구급대원 1,350명 중 여성 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185명)로,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주취자 폭행피해를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설치한 '폭행 피해 예방용 장비'는 경고방송과 소리방송, 비상벨, 응급 이송 중 주취자가 탑승하면 먼저 구급대원이 버튼을 눌러 경고방송을 해 주취자에게 구급차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폭행의 위험에 처하면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고, 운전실은 즉시 경고방송을 해 주취자에게 구급차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119구급차는 운전실과 환자차지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송 중에는 시야만 확보되고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실은 쉽게 알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송 중에도 구급차 운전실과 환자차지 공간 상호 간에 소통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는 2016년 46건 2017년 39건 2018년 65건이 발생했고, 2019년 3월 현재까지 6건의 폭행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처벌 결과는 실행선고가 39%(4건)에 그치고 있으며, 폭행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주취를 이유로 폭행 행위 감경 처벌도 한 원인으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벌 결과 비율이 49%, 집행유예가 20%, 기소유예가 7건, 기사가 6건, 집행 유예 1건이었다.

구급차 폭행 피해 총 157건의 중량이 일어난 횡소방서는 현상이 93건(59.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급차 내부가 50건(32%)을 차지했다.

구급차 폭행 피해 총 157건의 중량이 일어난 횡소방서는 현상이 93건(59.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급차 내부가 50건(32%)을 차지했다.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에 구급차에 설치한 폭행 피해 예방용 장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급차 내부 폭행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차구체으로 개발했다"며, "폭행 피해 예방용 장비는 물론, 신속한 응급처치로 폭행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폭행 피해 예방용 장비 운영 결과 효과를 토대로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제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고 믿고, 더 나은 품질의 원정 응급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19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어야한다"며, "시민과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보안뉴스